



‘천만행 질주’

‘부산행’을 개봉작 중 첫 천만돌과 속도감 있는 전개 속 가족애

올 여름 성수기 극장가에서 흥행 질주 중인 영화 ‘부산행’이 올해 개봉영화 중 처음으로 관객 1000만명을 돌파했다. 7일 영화 배급사인 뉴(NEW)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19분 현재 ‘부산행’의 누적 관객 수가 1661만명으로 집계됐다. 개봉 19일째 ‘천만 고지’에 오른 ‘부산행’은 역대 한국영화로는 14번째, 외화를 포함하면 18번째 ‘천만 영화’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부산행’은 개봉 초기부터 각종 기록을 양산했다. 올 5월 칸 영화제에서 ‘역대 최고 미드나잇 스크리닝’이라는 극찬을 받은 덕분에 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개봉 전 예매량이 32만386명으로 역대 한국영화 중 가장 많았다.

개봉일인 지난달 20일에는 관객 87만 2232명을 동원해 역대 최고 ‘오프닝 스퀀어’를 수립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23일에는 관객 128만950명을 불러모아

‘명량’(2014)이 세운 역대 일일 최대 관객 수를 경신했다. 역대 천만 영화 중 개봉 12일째 천만 관객을 돌파한 ‘명량’ 다음으로 빠른 속도다.

‘부산행’은 할리우드 영화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좀비 영화를 한국형으로 변주해 흥행시켰다는 점에서 한국영화 소재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행은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부산행 KTX에 올라 사투를 벌이는 인간 군상의 모습을 그려냈다.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설명 없이 곧바로 재난 상황에 돌입하며 극의 종착역을 향해 속도감 있게 내달린다.

그런데도 고개가 고덕여지는 것은 영화의 주 무대인 열차 객실과 열차 밖 재난 대처 상황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과 닮았기 때문이다. 딸과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공유)와 남편(마동석)의 모습부터, 저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좀비

의 희생양으로 밀어내는 악역(김의성)까지 다양한 캐릭터를 등장시켜 이야기의 결을 한층 풍부하게 만들었다.

영화 속에서 좀비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정부의 모습은 현실을 반영한 듯해 기시감마저 들게 한다. 정부는 바이러스가 검출될 수 없이 확산하는 데도 “잘 대처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대국민 메시지만 반복한다.

‘부산행’의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좀비를 그럴듯하게 구현한 점이 꼽힌다. 한국형 좀비에 반신반의하던 관객들도 막상 화면에서 좀비의 모습을 확인한 뒤에는 이야기에 몰입하게 된다. 부산행의 순 제작비는 85억원 선. 할리우드 좀비 영화의 제작비와 비교하면 저예산 영화 속에 속한다. 부산행이 칸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섹션에 초청돼 호평을 받은 점도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며 흥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하정우 “어둠속에도 히로애락은 있죠”

영화 ‘터널’서 특유의 넉살연기 눈길
스크린 불빛만 비치는 어두운 극장 안에서 영화 ‘터널’을 보고 있노라면 숨이 턱턱 막힌다. 입안도 먼지가 잔뜩 들어간 것처럼 바짝바짝 마른다. 객석에 앉았는데 주인공 하정우와 함께 실제 터널 속에 갇힌 느낌이랄까. 그러다가도 한발 떨어져 하정우의 고군분투를 지켜보다 보면 피식 피식 웃음이 난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내린 터널 속에 혼자 고립된 한 남자의 생존기를 그린 ‘터널’은 온전히 하정우의 연기에 기반 영화다.

남편의 구조를 기다리는 아내 역은 배우나, 구조를 책임지는 구조본부 대장역은 오달수가 맡아 열연하지만, 두 시간이 넘는 러닝타임 동안 관객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하정우의 몫이 가장 크다.

이미 영화 ‘더테러 라이브’를 통해 ‘원맨쇼’가 가

능함을 보여줬던 하정우는 이번에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침묵 같은 어둠 속에서도 특유의 넉살과 유머를 발휘하며 극의 숨통을 틔운다.

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하정우를 만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아파하고 고통스럽기만 한 영화라면 애초에 선택 안 했을 거예요. 아무리 코너에 몰렸어도 히로애락이 있을 거로 생각했죠. 그래서 극한 속에서도 한 번쯤 숨을 쉬며 쉬어가는 곳에서는 일부러 더 코미디로 무장하려고 했습니다.”

팔다리만 겨우 쉴 수 있는 좁은 공간 속 그에게 남겨진 것은 생수 두 통과 휴대전화, 딸의 생일 케이크, 자동차 워셔액 등뿐이다. 이는 ‘생존 키트’이자 극의 전개와 유머를 풍부하게 하는 소재로 활용되기도 한다.

하정우는 극 중 살아남기 위해 생수통에 눈금을 그려 일정량만 마시고, 손가락으로 생크림 케이크

를 조금씩 짹어 먹는다.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바깥 세계와의 통화도 제한한다. 구조될 수 있다는 희망 속에 나름의 생존 규칙을 만들어 지켜나간다. 재난영화 속 낯익은 장면이면서도 차이가 있다.

“통상의 재난영화들은 극의 후반부에 재난이 터지고 주인공들이 고통을 받은 뒤 엔딩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5분 만에 터널이 무너지죠. 그래서 나머지 1시간 50분가량을 끌고 가기 위해 강이치 탱이의 출연처럼 몇 군데 데님포인트가 등장합니다.”

하정우는 터널 안에 갇힌 주인공의 외적인 변화에도 신경을 썼다.

그는 “수척해지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 운동과 음식 조절을 통해 체중을 뺀 만큼 뺐는데, 영화 속에서는 막상 별로 티가 안났다”며 아쉬워했다.



하정우

굿바이 도니

정형돈 ‘무한도전’ 하차



MBC TV 간판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이 6월 방송을 통해 정형돈과 정식으로 이별을 고했다.

이날 이 프로그램의 ‘무한뉴스’ 코너에 등장한 유재석은 “2015년 11월 건강 문제로 방송을 쉬었던 정형돈 씨가 최근 정신적 부담을 호소하며 복귀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을 전해왔다”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재석은 “정형돈이 ‘무한도전’과 함께한 11년간 고생했던 생각이 난다”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방송할 그날이 오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유재석은 카메라를 향해 “형돈아, 수고했다”고 말했고, 박명수 등 다른 출연자도 정형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00 KBS 뉴스광장 50 여름특선 앙코르 인간극장 25 아침마당 30 KBS 뉴스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KBS 명품역사관 <광개토대왕> 50 남동 우리말(재) 00 KBS 뉴스 12 00 2016 리우 올림픽 중계식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유치원 00 삼성애니 하루 05 올림픽 특선 결연서 세계 속으로 00 KBS 뉴스5 30 전곡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7 35 여름특집 KBS 대기획 디렉터스컷 25 별난 가족 00 KBS 뉴스9 00 2016 리우 올림픽 <핸드볼(여) B조예선> 00 KBS 뉴스라인 40 2016 리우 올림픽 <유도, 사격, 비치발리볼 예선>	KBS2 00 여기는 리우 남지축구 조별예선 2차전 00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00 TV 소설 <내 마음의 꽃비> 40 여기는 리우 <수영> 00 KBS 특별기획드라마 <창보로 애뜻하게>(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 00 자동차부착성 위키 2 30 TV유치원 00 삼성애니 하루 05 올림픽 특선 결연서 세계 속으로 00 KBS 뉴스타임 20 올림픽 투데이 40 일일드라마 <여자의 비밀> 20 글로벌24 45 수상한 휴가 50 여기는 리우<양궁, 펜싱, 유도> 40 여기는 리우 <수영, 탁구, 핸드볼>	MBC 0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유도> 00 MBC 뉴스투데이 20 광주 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좋은 사람>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2016 리우올림픽 <수영> 0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MBC 정오 뉴스 20 2016 리우올림픽 하이라이트 <땀 속 꿈 리우> 00 MBC 뉴스 10 뚝?뚝! 키즈쿨 55 캐미캠프 00 MBC이브닝 뉴스 10 생방송 '빛날' 15 일일연속극 <다시 시작> 55 MBC 뉴스데스크 55 MBC 일일특별기획 <워킹맘 육아대대> 30 2016 리우올림픽 <여자핸드볼, 펜싱, 유도> 10 2016 리우올림픽 <펜싱, 유도>	KBC / SBS 05:00 리우 2016 <양궁, 유도, 펜싱> 00 리우 2016 모닝와이드 30 KBC모닝와이드 50 아침연속극 <사랑이 오네요> 10 리우 2016 <수영 남200m 준결승> 00 닥터365 05 아이엘 홍산 35 위대한 유산 00 SBS 12 뉴스 20 리우 2016 하이라이트 00 닥터 365 05 kbc자연재해예방법집 <자연재해 이렇게 대비합시다> 40 유럽의 해안선 55 TV블로그 컴지락 00 3시 뉴스브리핑 30 꾸러기 탐구생활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집 30 SBS 뉴스퍼레이드 50 KBC 저녁뉴스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라! 15 TV블로그 컴지락 20 일일드라마 <당신은 선물> 00 리우 2016 특집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00 월화드라마 <닥터스> 10 리우 2016 <양궁, 핸드볼, 펜싱, 유도>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5:30 건강 아침 05:40 성공시대 가는 한국인 <순결에서 피어나는 예술 - 미용 이은숙> 06:10 EBS 특별기획 통찰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여드벤처> 07:30 로보카 폴리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땀동맹 유치원 1~3 08:45 코코코 다코 09:00 캐니멀 09:30 원더볼즈	09:40 라이벌 토끼 부모 <육 히는 엄마, 떨어지는 딸> 10:30 한국기행 <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꽃게탕과 미역줄기 볶음> 11:20 세계대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시대공감 <스토리 그곳> 12:40 지식채널 e 12:45 EBS 스페셜 프로젝트 13:40 줄거은 수학 EBS MATH 13:50 원더볼즈(재) 14:00 미술탐험대 14:30 뽀롱뽀롱 부르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8일(음 7월 6일 壬戌)
子 48년생 예견된다면 당연히 피하고 봐야 하나라. 60년생 인정 받거나 이루어지는 형국이다. 72년생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상책이다. 84년생 임궫한 기준이 없다면 부실함을 면치 못한다. 행운의 숫자 : 80, 05	午 42년생 결보기보다는 내실을 기해야 한다. 54년생 대동소이하고 할 수 있으니 어렵잖아도 지장이 없다. 66년생 재료가 좋아야 결과물 또한 훌륭한 법이다. 78년생 상대의 속사정은 따로 있음 감안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8, 88
丑 49년생 계획이란 구체적이고 내용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61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 무의미하다. 73년생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틀림없을 것이나, 85년생 신중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65, 96	未 43년생 미연에 조치해 둔다면 위험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55년생 인내까지 매끄럽게 처리하자. 67년생 함께하는 이와 의 호흡이 중요할 때이다. 79년생 어찌보다는 훨씬 진전된 하루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1, 76
寅 50년생 원인부터 따져야 한다. 62년생 한 가지 일에 다른 일이 겹쳐 걸려서 매우 복잡다단한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74년생 뜻을 펼쳐보는 것도 기대할 만하다. 86년생 폭넓은 시각과 이해심이 감성을 부르리라. 행운의 숫자 : 90, 20	申 44년생 서로 들어맞지 아니하여 애를 먹는 모양새가 전개된다. 56년생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하는 듯 깊은 날이다. 68년생 지금 실행해놓지 않으면 어려워진다. 80년생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판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40
卯 51년생 곧 강풍이 불어 닥칠 것이니 우선 은신처로 피하고 보자. 63년생 영광스럽고 복된 날이 될 것이다. 75년생 순발력을 요하는 때이니 기민하게 대처하는 것이 맞다. 87년생 파격적인 시도가 형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24, 75	酉 45년생 결과적으로 인내가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이다. 57년생 공명대단 자세로 당당하게 임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 69년생 막연하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 81년생 조금만 비켜서면 만사가 해결된다. 행운의 숫자 : 26, 45
辰 40년생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자. 52년생 순조로운 운을 더 하고 있다. 64년생 천군만마를 얻음과 같이 흡족하리라. 76년생 폭염 속에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88년생 다방면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할 수 있나리라. 행운의 숫자 : 13, 79	戌 46년생 운운만 잘한다면 큰 이익을 꾀할 수 있다. 58년생 자발적인 자세가 상승효과를 보일 것이다. 70년생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붙잡고 있지 말고 새로운 것을 도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82년생 별로다. 행운의 숫자 : 34, 61
巳 41년생 눈에 띄는 것이 있으리라. 53년생 타산적의 격이다. 65년생 절제대로 해야 한다. 77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제하는 것이 알차다. 89년생 시간적 요소와 공간적 요소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17, 69	亥 47년생 지금 당장 이득은 없어도 가까운 시기에 길경으로 이어지겠다. 59년생 쉽게 잠담한다면 머지않아 곤란에 처해진다. 71년생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나리라. 83년생 좋은 일이 더 많이 발생하리라. 행운의 숫자 : 35, 16